

광주시·삼성전자, 지역 스타트업 육성 힘 모은다

24일 빛고을창업스테이션서 '광주-삼성 스타트업데이' 개최
7월4일까지 C-Lab 8기 스타트업 모집...최대 1억원 등 지원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에서 삼성전자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개최한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지역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노베이션) 기반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까지 C-Lab 8기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하며, 광주지역 창업기업이 선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술검증(PoC) 협업, 전용 공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50여개의 지역 창업기업이 참여해 업체별 기술을 발표하고 협력사례를 공유했다. 1:1 미팅(Meetup)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최됐다.
이광진 디메디 대표는 "카메라 기반 비접촉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 및 분석' 사업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협력사례를 공유해 큰 주목을 받았다.
디메디는 삼성전자의 센서 OLED 기술을 활용한 심혈압 측정 알고리즘으로 임상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김우열 클리어에 대표는 "다공성 구조 기반 산소 결합 조절 광촉매 기술 개발", 이레 더디멘션컴퍼니 대표는 "제품 디자인을 Text-to-CAD 또는 Sketch-to-CAD로 구현한 AI 소프트웨어" 등 지역 창업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발표하며 외부 투자자와 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C-Lab 자문위원이자 국내 최장수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지역 전략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C-Lab 아웃사이드(Outside)' 공모전에 대비해 삼성전자 C-Lab과 지역 창업기업 간 1대1 매칭 상담도 진행됐다.
전필규 삼성전자 창·개발센터장은 "광주시의



광주시는 24일 북구 중흥동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에서 삼성전자C-Lab,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창업지원 전략과 발맞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삼성 스타트업 데이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기술력을 외부에 알리고, 대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기정 시장, AI미래기획 수석 만나 AI 집중투자 제안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설립 등

광주시가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을 만나 광주 AI 집중투자 당위성을 설명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하 AI미래기획 수석을 만나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설립과 'AX 실증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비상계급 이후 중단됐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7월 중 의결돼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조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 '소버린(주권) AI'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는 2018년 AI를 선정한 후 AI데이터센터 등 AI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인프라·기업·인재 구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가 선정한 AI 시장에서 소버린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까지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6기 교육과

정의 교장을 맡아 광주의 강점과 장점을 꿰뚫고 있고 강 시장과는 이전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강 시장은 "울산에서 추진된 민간주도형 AI데이터센터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주도형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사업 에타 면제 등 광주에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성심 성의껏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전공약 서울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산 김·쌀·전복·오리털 인기...28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 5월까지 3억 5359만 달러 돌파

전남 농수산물품의 해외 수출액이 28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남도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3억 5359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2%)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2023년 2월부터 2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K-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비롯해 쌀과 오리털 등 10대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10대 주력 품목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김으로 5월까지 수출액 1억 7954만 5000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다. 김은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하며 수산물 분야로 보면 점유율 79.6%에 달한다.
쌀은 수출액 2773만 7000 달러로 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쌀의 경우 최근 일본 수출을 시작하면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털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1759만

4000달러를 기록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특산품인 전복은 1478만 9000달러, 과일 등을 원료로 한 음료는 1307만 1000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미역과 분유가 1000만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과자류와 음료, 김치와 같은 농산가공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정 현안 추진 중점...광주시, 227명 승진인사

광주시는 24일 2급부터 9급까지 총 227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면>
광주시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자료를 토대로 조직 안정성, 시정 현안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방 이사회인 2급 승진인사에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을 임명했고, 3급 승진자(지방 부이사관)로는 윤창모 관광도시과장, 박금화 건축

경관과장이 각각 승진했다.
이밖에 5대 신활력벨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AI 기반 미래산업 성장 등 민선 8기의 전략과제를 실행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12명이 4급(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2급 이하 직원들의 보직 경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1일~17일까지 전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이사회·부이사관 승진자 프로필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기획력·실행력·소통력·협업력을 두루 갖춘 실무형 리더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복합쇼핑몰 조성, 5대 신활력 벨트 등 지역경제 활력 창출형 사업을 추진했다. ▲68년생 ▲문화관광체육실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윤창모 관광도시과장

철도대 출신으로 교통정책에 뛰어난 윤창모 과장은 차세대산업과장, 군공항정책과장 등 광주시 핵심 전략부서를 두루 거치며, 복합 정책 조정과 실현 능력을 입증한 인재로 꼽힌다. ▲75년생 ▲군공항정책과장 ▲차세대산업과장



박금화 건축경관과장

박금화 과장은 민선 8기 녹지·경관·건축 정책을 거치며 도시경관 디자인 도입과 녹색건축 기준 확대 등 광주 도시경관 정책 전반에 실무 기획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72년생 ▲건축설비부장 ▲공원조성과장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